

안녕하십니까, 재영과협 회장으로 봉사 중인 임성우 입니다. COVID-19 로 힘든 중에도, 재영과협 회원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지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.

돌이켜보면, 재영과협에 봉사한 지난 6 년 (부회장 4 년 포함)은 제게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제 임기중의 목표는 EKC2018 유치 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재영과협의 내실을 다지는 것 이었고 아래와 같은 몇가지 결실을 맺었습니다.

1. 영국 Charity 로 등록 후, 재영과협의 주 거래은행을 영국 HSBC 로 전환하고 영국 회계사를 고용하여 회계 업무의 효율을 높였습니다.
2. 재영과협의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고, 회원 관리, 행사 및 재무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사무장과 재무부에 집중적으로 걸리는 업무량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.
3. 분과와 지부의 모호한 경계로 희미해진 지부의 역할을 고려하여, 지부를 해체하고 분과 지원에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이렇게 내실을 다지는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으나, 재영과협의 외부 활동은 2018 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였습니다. 그 이유로는,

- 첫째로 2018 년 EKC2018 (Glasgow)의 성공적인 유치 후 축적된 피로감으로 인하여, 2019 년에 많은 운영위원들의 하차 및 교체가 발생하여 각 분과별 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. 이러한 현상은 EKC 를 유치했던 과협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로, 부족한 인력으로 큰 규모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예 입니다.
- 둘째로 2020 년은 전세계를 강타한 COVID-19 의 여파로 기존 재영과협 회원분들의 거취 변화, 재영과협 정기총회/학술대회의 연기, 그리고 EKC2020 의 취소 등 계획했던 주 행사들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.

제가 재선이 된다면,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운영위 맴파위를 다시 보강하여, 재영과협이 예전처럼 유럽에서 가장 활성화된 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와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임성우 드림